



희망을 갖고 도전하는 세계 일류기업

-한국중부발전(주)서천화력발전소-

열차가 지나는 철길을 따라 노오란 개나리가 터널을 이루고, 거리의 가로수는 연두빛 고사리손을 내밀며 어서오라고 손짓한다.

개나리와 가로수의 환영을 받으며 도착한 곳은 충남 서천에 위치한 한국중부발전(주) 서천화력발전소. 발전소 뒷동산의 동백꽃이 유난히 아름다운 봄날, 서천화력발전소의 향기로운 안전활동에 심취하였다.

변화할 줄 아는 세계 일류 기업

1983년 순수 국내 기술과 무연탄을 사용하는 최초의 발전소로 준공된 한국중부발전(주) 서천화력발전소(소장 문성기)는 「안전·품질·환경 경영체제 구축으로 최우수 발전소 건설」을 목표로 지역 주민들의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곳이다.

준공이래 태백, 화순 등에서 생산되는 약 2,000만톤의 무연탄을 사용하여 국내



석탄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이곳은 다량의 무연탄을 사용하는 만큼 탈황설비,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등 최선의 제어설비를 갖추어 그 타이틀에 걸맞은 책임있는 경영으로 더욱 각광받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희망과 보람의 세계 일류 기업'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인간중심경영, 가치창조경영, 변화지향경영을 수행중에 있어, 21C 첨단 시대에 발맞춘 혁신을 통한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기업경영뿐 아니라 안전관리를 함께 있어도 현실의 난관이나 문제에 부딪혀도 이에 굴하지 않고 새로이 시도하는 변화와 도전의 모습을 잃지 않는다.

형식을 배제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안전

분기별로 시행되고 있는 노사합동 안전점검은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소장 등 간부들과 협력업체 간부들까지 15명 정도가 심도있게 정밀점검을 한다. 무엇보다 노사합동 안전점검을 꼼꼼히 챙기는 문성기 소장은 안전모부터 시작해 안전화까지 한치의 흐트러짐없는 모습으로 점검에 임해 직원들의 귀감을 산다. 예리한 통찰력과 경험으로 사내 곳곳을 점검하고, 이러한 점검활동이 한번 스치는 이벤트가 아닌 실질적으로 노와 사가 하나되어 안전한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이러한 문성기 소장의 마인드를 반영한 것이 녹색 신호등 제도이다. 현장에 잠재되어 있는 유해·위험 요소를 지적하면 그 내용이 메일을 통하여 품질안전팀에 접수(적색등)되고 해당 부서에 통보(황색등)되어 조치(녹색등)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천화력발전소내에는 적색의 경광등이 12곳에 설치되어 있다. 이는 과거 아차사고가 발생했던 장소로 아차사고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차후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전기공(주)의 5개의 협력업체와 함께 일하는 이곳은 분기별로 협력업체협의체 회의를 실시하여 파트너십을 더욱 돈독히 다진다. 서천화력발전소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강관리

비가 오면 허리가 쭈신다는 어르신들이 많다. 과거, 일명 나이병이라 치부하던 근골격계 질환을 방지한 탓이리라.

이에 한국중부발전(주) 서천화력발전소는 근로자들의 뇌심혈관계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건강검진 및 정밀체력 측정은 물론 서천군 보건소와 연계한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여 흡연자들을 개별 관리하고 금연 전후 체내 CO 함유량을 측정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에 힘쓴다. 금연에 성공한 직원에게 일정한 성과금을 주는 금연펀드는 금연클리닉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서천화력발전소

지역주민들의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전기를 공급하는 이곳은 전기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활동에도 인색하지 않다.

작년 7월 「사랑으로 희망을, 나눔으로 웃음을」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사회봉사단 9개팀을 창단하여 서천군과 인근 노인 및 아동보육시설 등에 전기안전과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가전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적극 홍보하여 일상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화하는 데 일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 향토문화제 및 축제에도 주차장을 개방하고 전기 및 안전시설물을 제공하는 등 지역과 함께하는 서천화력발전소로 거듭나고 있다.

이러한 이들의 노력은 2003년 10월 KOSHA 18001 인증을 비롯해, 한국경제신문 주최 안전경영대상을 수상하는 등의 업적으로 증명되었고, 올해 7월에는 무재해 10배수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변화할 줄 아는 노사 공동의 안전경영이 빛을 발해 무재해 10배수의 꿈이 이룩되길, 더 나아가 그들이 바라는 '희망과 보람의 세계일류기업'에 우뚝 서기를 기대하며 앞으로의 그들의 행로에 박수를 보낸다. 

(성호연 기자)

